



BAZAAR

A Harper's

S SFAA & SEOUL
COLLECTION REPORT

Designers in Seoul
김민, 소피 알부, 크롬 히츠, 다이브 도아

김파 여자가 된 강혜정
배우의 정침에서 만난 차승원, 송은아
뮤지컬스타, <영웅>의 류정환
<아이리스> 김소연의 뷰티 시크릿

대한민국 PD 열전

구보 씨, 마브
우석문
KAWS를 아시나?

Holiday Survival
파티 스타일링 팁과 뷰티 어

(여자) 코리아가 아리스톤 KAWS,
카일과 함께 어린이들을 후원합니다.
**SUPPORT
CHILDREN'S
CHARITIES
AROUND THE WORLD**

Viva London

25주년을 맞은 런던 패션 위크에서 만난 37명의 런던
슈퍼모델과 디자이너 그리고 영국 패션

ADIEU

Bazaar Korea cover -Dec issue

KAWS를 아시나요?

데미언 허스트, 스테판 스프라우스의 계보를 이어 최근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 일명 'KAWS'라고 불리며, 뉴욕을 대표하는 뷰티 브랜드 키엘과 함께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 만들기엔 두 팔을 걷어붙인 이 남자!
(바자) 코리아가 이 삼삼치 않은 아티스트를 브루클린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에디터/장미아

리 바이스 매거진 포켓 위크의 동그란 차아들, 베이브리와 마크 케미칼스 플랫폼 슈즈 뒤의 X자 눈, 그리고 에니메이션 (키비피피)를 연상시키는 (뉴욕) 지의 키비키지! 이 전혀 다른 카테고리 아이덴티티 세션 플랫폼은 바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KAWS다. 어린 시절 키엘의 그래픽 아티스트로 시작해 스코틀랜드 마우팅 어프를 거쳐 현재 캐릭터 디자인이자 메인티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지금 데이먼 허스트보다 훨씬고 스테판 스프라우스보다 파워풀하다! 무엇보다 뷰티 브랜드 키엘과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케미티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바자) 코리아와 인연을 맺게 된 그는 어떤 것일까 (바자) 코리아 송년호의 키비 어프워크를 진행한 발본안이기도 하다. 수많은 패션 브랜드의 리브폼과 멋진 뮤지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 KAWS, 솔직히 그의 경계가 궁금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작품집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그를 만나기 위해 (바자) 코리아는 키엘의 도움을 받아 브루클린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까지 찾아갔다. 날 좋은 어느 늦가을 아침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철익 마구모자를 착용한 큰 바론 재킷의 KAWS는 인터뷰에 올라온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작품집 촬영을 위해 전날 큰 작품을 다룬 스튜디오를 옮겨서인지 살짝 피곤한 기색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잠깐만 목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대해 분명하게 고을했다. 촬영에 익숙지 않다는 그의 말에 최대한 무진 자연스러운 무드로 유도하면서 촬영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자 타치인, 케인팅, 케미티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어졌다. 젊은 스튜디오를 오가며 손수 작품을 옮기고 닦는 그에게서 어느새 숨길수 없는 피스함이 풍속 풍속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스튜디오 곳곳에 위치한 캐릭터들을처럼.



KAWS의 캐릭터들과 함께한 아티스트 KAWS, 브루클린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바자) 코리아 송년호의 키비 어프워크를 진행한 발본안이기도 하다. 수많은 패션 브랜드의 리브폼과 멋진 뮤지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 KAWS, 솔직히 그의 경계가 궁금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작품집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그를 만나기 위해 (바자) 코리아는 키엘의 도움을 받아 브루클린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까지 찾아갔다. 날 좋은 어느 늦가을 아침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철익 마구모자를 착용한 큰 바론 재킷의 KAWS는 인터뷰에 올라온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작품집 촬영을 위해 전날 큰 작품을 다룬 스튜디오를 옮겨서인지 살짝 피곤한 기색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잠깐만 목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대해 분명하게 고을했다. 촬영에 익숙지 않다는 그의 말에 최대한 무진 자연스러운 무드로 유도하면서 촬영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자 타치인, 케인팅, 케미티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어졌다. 젊은 스튜디오를 오가며 손수 작품을 옮기고 닦는 그에게서 어느새 숨길수 없는 피스함이 풍속 풍속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스튜디오 곳곳에 위치한 캐릭터들을처럼.

HAVE YOU HEARD OF KAWS?

In the footsteps of Damien Hirst and Stephen Sprouse, there's an artist in town that brands have an eye on. Known as 'KAWS', this artist is now working with the top New York cosmetics brand Kiehl's Since 1851 to make a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around the world. Harper's Bazaar Korea goes to KAWS's Brooklyn studio to meet a special artist.



KAWS의 작업실

KAWS의 작품

당신은 누구인가? **〈마치〉** 코리아의 독자를 위해 자신을 한마디로 설명해달라. 음, K.A.W.S.(웃음) 이렇게 나를 설명할까? 글래, 모로코였다. 가능하면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대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대로 내버려두는 편이다.

그렇다면 본명 대신 사용하고 있는 'KAWS'는 무슨 뜻인가? 그런 내가 그래피티를 하던 고향으로 시경부터 계속 써온 이름이다. 그때 알파벳으로 레터팅을 즐겼는데 그냥 K, A, W, S라는 알파벳의 형태와 숫자, 조합이 마음에 들었다. 주로 내 개의 글자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레터는 부족한 것 같고 다섯 개는 너무 많고, 별 의미 없었다. 사람들이 지퍼를 잠그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뿐이다. 만약 브라이언 도넬리(Brian Donnelly)라는 본명을 계속 사용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도 전부터 아이리시 출신의 남자구나라는 편견을 갖게 될 거다. 하지만 KAWS라면 국적, 성별, 출신, 인물들이 어떠한 추측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무언가에 규정되는 것을 꽤나 싫어하나 보다. 음, 그런가 보다. 솔직히 그래피티를 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걸 좋아할 적 없었다. 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는데, 그도구가 후연상제 스타플레이가 됐을 뿐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오, 이게 그래피티 디자인이군"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작품들은 이제 그래피티랑 어떤 연관성도 갖지 않게 됐어.

그래도 어렸을 당신이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처음 명성을 날린 것은 사실이다. 계기는? 어렸을 때 뉴욕까지의 저지시대에 살 때 동네 친구들과 아슬리 스퀘어 보드를 타고 브루클린 강가나 맨해튼을 났다. 그래피티를 여기저기 그려냈다. 당시 그래피티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나누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때 나는 그래피티를 통해 지리력을 배웠다. 난생 처음 외국 여행을 갔던 순간이었었는데,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내 그림을 통해서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살래도 방문하기 전 이미 그곳에 내가 존재하며 살고 있던 거다. 그래피티를 하는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서로 재료를 배우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당시엔 어떤 그래피티를 주로 그렸나? 가끔 캐릭터를 그리긴 했지만 대부분 내 이름 KAWS를 그리고 다녔다. 그게 전부였다. 뒷골목 예술집으로 치부되고 그래피티가 최근 몇 년간 패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두말 할 것 없이 그래피티의 가치가 올라간 건 사실이다.

글로벌 패션 하우스랑 함께 작업하거나, 하킴 카메룬 하우스 리모레이션 작업은 사실 진짜 그래피티 자체의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런 단지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피티의 힘은 오직 길에 있는 '진짜' 그래피티에 있을 수 있다. 살아 살아 숨 쉬는 길에 열기왕성한 아이들이 뛰고 그걸 보면 웃어대고 노약한다. 나는 더 이상 거리에서 그래피티 있지 않으니, 어떤 키엘과 했던 작업이나 다른 패션 브랜드 작업들도 그래피티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의 나는 왜인하 다 가깝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길은 끝났고 있는 중이다.

어디서 영감을 받는가? 영화, 음악 혹은 사람들? 음, 진짜 그것에서 영감을 받는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만약에 길을 걷다가 퍼져나간 퍼키지 같은 것을 봤을 때조차 만다. 디자인해서 절대 나누고 싶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리얼 박스나 캔디 박스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놓여 있는 구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 둘의 경우는 주로 음악에서 따온 것이 많다.

최근 당신의 작업은 캐릭터 디자인 쪽에 무게를 두는 느낌이다. 이유가 있나? 음, 처음 캐릭터 보이를 만들었을 때가 비스트링 전파와 스텝들의 광고판에 그림을 그리고 붙이는 케릴라 아트크 두렸을 때다. 당시 나는 무엇이든 가장 최고와 저급으로 싶어서 광고를 고를 때 어떤 제품의 이미지와 어떤 모델의 이미지와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걸 관찰했다. 그것들에 내 아이디어를 접하는 작업을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캐릭터를 활용하는 거. 저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건 마치 배우 하나를 만들어 봐 같다. 그 누구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감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련성이 높지 않는다(웃음) 워낙 함께 작업하는 동료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그 미니멀하면서 워트 있는 동지들은 구체적으로 탄생되고 발전되나? 우선 캐릭터의 역사를 먼저 연구했다. '스나 미셸린 타이어 캐릭터는 이제 디즈니 혹은 미셸린이라는 소속되어 있다'고 봐도 하나의 생명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내 캐릭터를 만들 때에도 나름의 역사를 짓고 싶어 술을 수컷 캐릭터들을 떠올렸다.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버섯을 스치거나 어떤 때는 어릴 살, 어릴 살, 스물에서 삼십까지의 단계 각 미용러를 수컷 한다. 대 거인 속 캐릭터와 캐릭터의 몸무게를 조합해 취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다. 하지만 가



KAWS의 작업실

KAWS의 작품

진 것은 아이들이 보고 단순하게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모두 서로 어떤 관계구도 안에 존재한다. 첫 번째 캐릭터를 만들고 다음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만든다. 그래서 나의 캐릭터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캐릭터만으로 관계도를 그릴 수 있겠다. 대 머릿속으로는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작업에는 하얀 장갑을 낀 오동통한 손이 등장한다. 그 손의 정체는? 사실 그런 내 캐릭터가 만들어진 가장 초기부터 존재하던 거다. 이미 1990~2000년대 캐릭터 역사에서 이거나 다른 많은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손 모양에서 착안한 거고.

손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 음, 그 손들이 나만의 생각을 넣고 특정하고 브랜드화시켜 나만의 열정,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한다. 그게 비키의 손이든 도넬리의 손이든 내가 손을 때어서 내 것에 넣었으니 "그런 내 캐릭터라고 한 거다. 나는 언제나 요소를 분리하고 변형시켜서 최대한 미니멀하게 만들어서 보여준다. 그 본래의 것이 없어도 돼"고 해서 다시 태어나게끔.

그럼 X마크가 의미하는 건 뭔가? X마크는 단지 눈을 대신하는 거다. 그림 장갑 위에 X는 손의 눈인가? 그런 건 아니다. 그림에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나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다.

가끔 당신이 만든 캐릭터의 X마크 눈을 바라볼 때면 저 캐릭터는 웃고 있다. 행복하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음, 기본적으로 X마크는 캐릭터 역사 속에서 보면 대부분 캐릭터가 죽었을 때나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하는데 어떤 특별한 감정을 붙여넣었다고 보든 감정을 넣었다는 눈이라고 봐도 된다.

특히 지금 스튜디오 곳곳에는 베이브리크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은 마니아 층을 형성할 정도로 인기도 높지만 그 이유가 무어라 생각하나? 베이브리크의 본산인 테라 커뮤니케이션즈의 영향이 크다. 개인적으로 그 회사를 좋아하고 늘 같이 일해오고 싶어했다. 지금 내 스타이언 오리지널베이크도 베이브리크 콜라보레이션했다. 아예 그들의 소풍이 끝났다는 게 한참이지 않았을까?

수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당신의 디자인을 사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작업에 동참했다고 들었는데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어떤가? 처음 뮤지션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전은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케일렌 힐리(Bathing Ape)의 니고(Nigo)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캐럴 윌리엄스(Carol Williams)를 알게 되고,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를 알게 됐다. 그들 모두 훌륭한 뮤지션이

며 프로듀서였다.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와 교차하며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들이 그 캐릭터를 할 때처럼 나를 듣게 만든다. 특히 뮤지션들과 작업하는 건 다른 마주얼 아티스트와 작업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 그들은 마주얼 아티스트보다 한 걸 빠르게 작업하고 짧은 순간에 수백만에게 강력하게 다가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카니에 웨스트와 같은 뮤지션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나도 한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는다. 그와 어떤 작업이 마틴스카어의 빌보르도 걸렸을 때 브로드웨이엔 걸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나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거리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 옆에 들어가고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패션이나 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다른가? 내게는 똑같다. 내가 갖고 있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한 다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제야'잖아.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느껴졌던 대실이 직접 만나 대화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다. 최고의 경험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다행히 지금까지 서로 '원만'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이나 학생들이 어떤 브랜드들의 속에서 내 작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이나 학업에 참조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크 제이콥스, 리바이스, 롱 데이 카르스, 베이킹 에이프 등 셀 수 없이 많은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왔다고 들었다. 그들과의 작업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전부 각각 다른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베이킹 에이프는 2009년 좋은 무렵 일본에 자주 출근하니까 만나게 된 니고 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슈프림 스테이트 오브 미(Supreme Statehood)의 경우 내가 10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예스트 프렌드가 쇼에 참여해서 그 계기로 일을 하게 되었다. 마크 제이콥스의 경우는 내가 평소 슈즈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프랜시스 친구가 소개해준 것이다.

유일하게 일본에만 시그니처 스타이언 오리지널베이크(Originalfake)가 있다. 그 이유는? 나는 언제나 일일이 직접이라고 생각했고, 이상하게 몰랐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의심해보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숨을 쉴만한 일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이나 유럽, 그러면 다른 곳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볼 만하다. 기회가 생긴다면 뉴욕에 숨을 쉴만한 곳까지 가서 그림을 그려볼까? 아마도 뉴욕보다는 일본이 내 작업에 더 잘 맞는 곳이라고 봐도 된다.

〈뉴욕〉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커비나 (I-D) 〈나일론〉 〈리우즈〉 등 콜라보레이션한 패션 매거진의 커버들이 한결같이 멋졌다. 매체들과

의 콜라보레이션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시절 살았던 저지시대는 땀과 근면함 결여라고도 하고 어브를 걸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음악과 육구를 주로 걸칠 물체 해소했다. 스케이프 보드, 그레퍼피와 함께 그대 생각했다. 언젠가 어브워크를 선보일 때는 그런 데칼코마니의 소용돌이 보러가야겠다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해제의 콜라보레이션은? 작년 (3-1) 메가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당시 전체 이슈를 제작업뿐 아니라, 커머부터 데드메이치와 화보까지 전부 살펴볼만큼 좋은 기회였다.

그걸 전부 뛰는 데 얼마나 걸렸나? 음, 2주 정도. 캠프 마감이 얼마나 크레이지하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않나?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다행히도 그때 다른 일을 마감 뒤로 미룰 수 있어서 아쉽게 일이나 참들 때까지 하루 동안이었다.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 그런 지면에 실릴 전체 이미지를 내게 주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 완벽한 신화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3-1) 메가진의 오프니하는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 아낌없는 지원이 모두 약속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또한 그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내 작업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토그래퍼나 광고주들과는 어떻게 조율했나? (3-1)에서 사진가들과 광고주들에게 화보다 광고위에 그림을 그림 전체 관점은 지양했고 만약 캔슬다면 잡지가 프린트되어 나올 때까지 볼 수 없어도 감안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다행히 나를 O.K.했다. 다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셋이서부터 시작 할 계획이까지 다 했을 땐데 그렇게 할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렇다면 키엘과의 인연으로 (여자) 코리야의 송년호 커버를 장식하게 되었는데 어떤 커버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것은?

솔직히 아직 못. (웃음) 하지만 키엘과의 해리해 프로젝트와 연결해 커버를 작업해달라 요청받았다. 이 인터뷰를 읽고 있는 누군가는 분명 커버를 보았을 테니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 말해준다.

평소 도시 빈민을 아이들을 위한 어브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들었다. 얼마 전 (유니콜 무지(Sonntauf Loser))의 다우먼티리 같은 예쁜 로스(Aeron Ross)와 나이가 함께 추진한 뉴욕, 도쿄, 샌프란시스코, L.A.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어브 워크숍인 'Make Something'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해니메이전은 REAS, 다투는 스코트 캠프(Scott Campbell), 사촌은 차일던(Charly Dunan), 사촌마오그레피는 로빈 예인드(Robin Yulindan) 등이 참여했다. 나는 캐릭터 디자인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정말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었다.

키엘과의 콜라보레이션 역시 전체 세상에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거금으로 사용된다고 들었다. 키엘은 30년 넘게 애용하는 뷰티 브랜드다. 해니메이전은 오늘날 쓰고 나왔고, 평소 키엘이 지닌 기업 철학을 높이 사고 있던 차에 이번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왔다. 게다가 수익금의 전부를 어린이들을 위해 쓴다는 더욱 마음에 들었다.

본사의 부사장인 사아가 잘 아겠다. (사라에 따르면 그의 전직을 알 때는 거의 4개 스텝으로 걸려 관망감이 높아서 시일을 만큼 분신상사였다고!) 그녀는 전직상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청적으로 감명해주었고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뷰티 브랜드와는 차를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건데 다른 작업과는 차이가 있었나? 어떤 브랜드와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누구와 일하는지, 어떤 경험을 쌓게 되는지 따라 다르다. 그런 면에서 키엘과는 이제 거의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금 키엘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달라. 대부분의 뷰티 브랜드의 경우 팔러대어는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목을 대는 것이다. 그런데 키엘에서 'Peace, Love, Kiehl's'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얼덜드 코코'를 그걸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역사적인 레지치 디자인까지 바꿔가며 리비트 에디션으로 만들고 그 만큼 수익금을 1백만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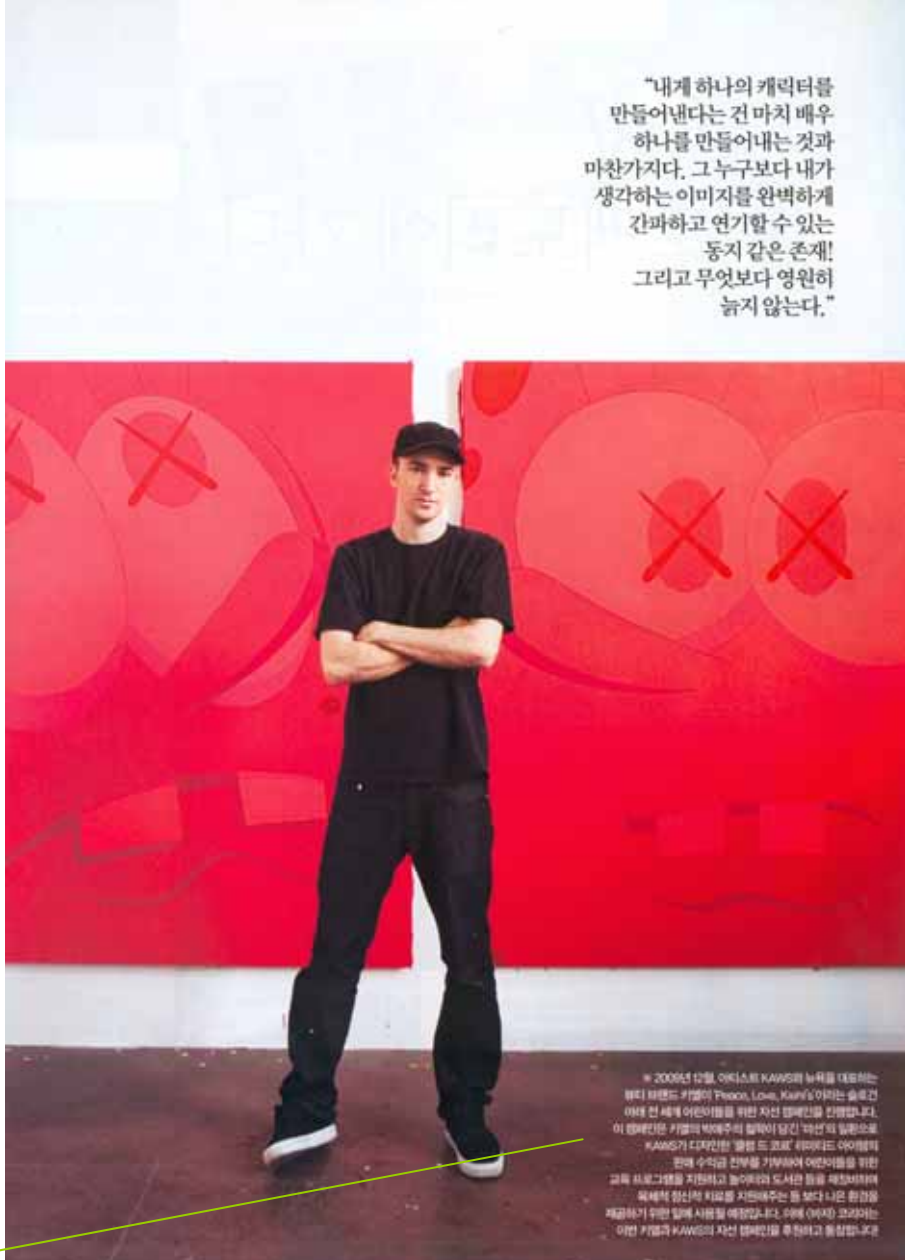
그렇다면 당신이 디자인한 '얼덜드 코코'의 새로운 패키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최근 대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이 그러했듯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서 생각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스의 경우 프로젝트의 취지가 나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 용도로 사들일 테니 내 캐릭터가 행복할 모습으로 커다란 선물을 살기 위해 누워있길 바랐다. 이런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할머니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상자를 주룩주룩 놓아 달았는데,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선물을 상자를 열어볼 수 없이 사촌들과 그 옆에 아이를 두고 지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만약에 내 캐릭터의 사이드라면 이 선물을 박스 밑에 커다란 발치를 놓고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

개인전 준비로 여념이 없다고 들었다. 살짝 공개해줄 수 있나? 음, 11월 5일에는 뉴욕에서 그물 쇼가 하나 있고, 내년 5월에는 솔로 쇼가 있을 예정인데 하나는 스페인 마드리드 갤러리인 로제티(http://www.galeriaroseti.com/)에서, 또 하나는 첫 번째 유제임 쇼로 코네티컷에 있는 알드리히 갤러리(http://www.aldrichart.org/)에서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유제임 전시에는 맞춰 라플라 출신에서 작품들도 나올 예정이고, 혹은 처음 작업부터 지금까지의 작업을 모두 커버하게 될 텐데, 모든 작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프로젝트보다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다 넣을 예정이다. 어떤 작품이 유제임에 걸리게 될지는 아직 작업 과정에 있지만 유제임을 몇 차례 방문해 무언의 공간을 체크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다.

정말 바쁘겠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뭘 하냐? 일단 (웃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없다. 키우는 비글이 한 마리 있어 가끔 산책하고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는 정도가 다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가 돌아온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글쎄? 사아가 카펫 재운을 이 스텝이들을 재운 만큼 많이 보내주지 않을



“내게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건 마치 배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연기할 수 있는 동지 같은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늙지 않는다.”

* 2009년 12월, 에이스티 KAWS의 뉴욕을 대표하는 뷰티 브랜드 키엘에서 'Peace, Love, Kiehl's'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차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키엘의 매출에서 할당된 당진 적산의 일부를 KAWS가 디자인한 '얼덜드 코코' 시리즈의 수익금에 의해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놀이터와 도서관 등을 재건하며 독재적 정치와 자살을 저지하려는 등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간다. 올해 (여자) 송년호는 이번 키엘과 KAWS의 차선 캠페인을 후원하고 동행한다.

* 2009 December KAWS and the New York cosmetics brand Kiehl's are creating a charity campaign under the name 'Peace, Love, Kiehl's'. This campaign represents Kiehl's philanthropic mission and sales profits of the Crème de Corps limited edition (KAWS designed the bottle) will be donated to be used to create educational programs and refurbish playgrounds and libraries for children and creating a better environment for them. Bazaar Korea will be supporting the Kiehl's and KAWS charity campaign.